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기아자동차] 2012년형 쏘울 해외 광고 화제



기아자동차 2012년형 쏘울의 햄스터 광고 3탄이 공개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를 통해 새로운 60초짜리 쏘울 광고를 선보였다. 이번 광고에는 햄스터 3총사

가 등장하는데, 햄스터 3총사는 신형 쏘울을 타고 로봇들이 벌이는 우주전쟁 한복판에 뛰어 들어 신나는 댄스를 무기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내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의 인기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에 소개됐던 쏘울 햄스터 광고는 기아차 브랜드를 새로운 고객에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미 TV광고 외에도 곧 영화관에서 햄스터 광고를 방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 새롭게 선보인 그룹 이미지 광고 캠페인



한화그룹은 새로운 그룹 이미지 광고 캠페인 ‘웃는 태양’ 편을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한화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한화그룹은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라는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을 정하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개하였다. 이번 광고를 통해 한화그룹은 모든 사업부문에서 소비자의 삶 전반에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한화의 의지와 가치, 역동적인 에너지를 담고자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화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웃는 태양’의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따뜻하고 세련된 감성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새광고 통해 기업이념 알려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새로운 광고를 시작했다. 이번 광고는 ‘금융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룹의 기업이념을 알려

고 있다. 또한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고객에게 신한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의 영상을 통해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번 광고는 기존 광고와 달리 금융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광고 소재로 개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징검다리, 삶을 향기롭게 만드는 꽃, 어둠을 밝히고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모닥불 등 사람과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것들을 채택, 신한인의 이미지를 묘사했다.

[삼성전자] 신제품 ‘미러팝 카메라’ 광고 화제



삼성전자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CGV 영화관에서 인터무비(Inter Movie) 형태로 제작된 신제품

‘미러팝’ (모델명: MV800) 카메라 광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국내 최장 시간인 2분 30초짜리 TV 광고를 영화관에서 첫 공개하였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이번 광고는 삼성전자 카메라 모델인 한효주와 배우 이제훈이 주인공으로 참여해 미러팝 카메라를 매개로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제품의 기능적 특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기존 상업광고보다 시간을 5배 가까이 늘려 2분30초에 달하도록 제작하였다. 삼성전자 관계